

# 전북 1,215억 벤처펀드 운용사 3곳 선정

소부장 인라이트벤처스  
창업벤처 안다아시아컨소시엄  
산업기술혁신 JB인베스트먼트  
하반기 1천억 펀드도 계획

전북자치도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북 벤처투자위원회를 통해 '2025년 제2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의 운용사 3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운용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인라이트벤처스' ▲

창업벤처(엔젤투자) 분야에 '안다아시아벤처스·KB증권 컨소시엄'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JB인베스트먼트'다. 이들 운용사는 전북자치도의 출자금 95억원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1천215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이번 출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투자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선정된 인라이트벤처스는 총 56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전북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읍시 기업에도 20억 원 이상을 배정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등과 연계한 투자전략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엔젤투자 분야에서는 안다아시아벤처스·KB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4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며, 전북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TIPS 및 스케일업 TIPS 활용 계획, 430억 원 이상의 지역 투자 경험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선정된 JB인베스트먼트는 약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JB금융그룹의 계열사 네트워크와 도내 지정 설립 공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하반기에도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 결성을 목표로 7월 중 새로운 출자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김윤덕 의원 국토부장관 지명 전북 정치 지형 '격변' 예고

통과 시 전북 넘어 존재감 부각  
현안 해결 시 정치적 입지 강화  
전북 도지사 쟁쟁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전주갑 3선인 김윤덕 의원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됐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입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유력한 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도지사 도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총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사다.

정치권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인사 원칙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인사에서 '탕평책'을 기본으로 삼되, 핵심 보직에는 자신과 정책적 호흡이 잘 맞는 인물을 총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을 초기부터 함께 해 온 '정무적 동지'로 평가받는다.

호남권 의원 중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했던 김 의원은 이후 당 사무총장으로



김윤덕 후보자

지내며 당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지난 대선에 압도적 승리로 이끌었다. 이러한 배 경 속 에 김 후보자의 국토

부 장관 지명은 단순한 '지방선거용 카드'가 아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국토 균형발전에 사활을 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사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정부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는 실무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정치적 생색을 내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전북지역 출마자 구도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김관영 현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완주·진안·무주·장수)의 전략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다른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 착공, 호남권 철도망 확충 등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낼 경우, 호남 정치의 중심 인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전주갑은 현재 뚜렷한 경쟁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면 4선 고지도 무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과열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집값 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자치분권 공동행보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 현장에서 듣다

스마트 제조혁신 현장 간담회  
정읍 웅지피앤지 찾아 애로 공유  
디지털 전환 현장 의견 수렴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과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직접 참여기업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

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성과보고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정읍시 소재 참여기업인 웅지피앤지를 방문,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정읍지역 5개 기업 대표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과 제조혁신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제감하고 있다. 특히 웅지피앤지는 로봇 취출기 교체시간 단축, 물류 공간 추가 확보, 부품 전용 운반구 적용 등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였으며, MES(자동제조실행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

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제조혁신 성과가 도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의 전환은 제조업 혁신의 핵심"이라며, "웅지피앤지 사례처럼 스마트공장 혁신의 성과가 전북 전역의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

서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디지털 기반 제조공장 혁신을 목표로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간편자동화, MES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도입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고용노동부

이 광고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위험이를 잡아주세요!

위험 표지판(안전 메시지) 다운로드  
www.kosha.or.kr/safety1team

위험이를 잡아라 TV캠페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부착으로 우리 모두 안전!

# 전북자치도-도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청렴 실현 공동 실천 협약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청렴윤리팀 신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와 도의회는 14일 도청에서 '청렴 전북 구현 협약식'을 열고, 청렴한 전북 실현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간 의미 있는 시도로, 행정과 의정이 청렴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도청과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지역 청렴문화 조성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 △권한 남용, 부당한 요구 등 이른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와 도의회는 14일 도청에서 '청렴 전북 구현 협약식'을 열고, 청렴한 전북 실현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바 '갑질' 행위 방지와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 협약을 계기로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도의장도 "도민을 대표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청렴업무 전담 조직인 '청렴윤리팀'을 신설하고, 오는 18일에

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을 초청해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와 도의회는 올해 말 발표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청렴정책 개선과 문화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진=전북자치도>

/김영태 기자

## ‘하반기 전북청년인턴’ 기관·기업 39개소에 220명 배치

8월 14일까지 인턴십 실시  
1천명 인턴 배출 예정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인턴십을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우수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

원하는 전북자치도의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참여자 모집에는 총 1천24명의 전북청년들이 지원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2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앞서 2025년 상반기에는 도내 37개 기관·기업에서 총 213명의 청년이 인턴십에 참여한 바 있다.

선발자 220명은 7월 1일 온라인 사전 오리엔테이션, 7월 4일과 9일에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인턴십 준비를 마쳤으며, 이후 도내 39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배치돼 7월 14일부터 5주간 직무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인턴십에는 전북은행 등 기존 참여기관들을 비롯해, LS엠트론과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새롭게 참여해 직무체험 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협약을 맺고 올해 약 1천명의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무경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청년 직무인턴은 청년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지역 정착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일자리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농업 민생 4법 중 2법  
여야 합의로 통과 뜻 깊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경음·고창)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

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작년 11월 28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

상 회복을 위해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3월 '농업 민생 4법'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했다"며 "농업 민생 4법' 중 2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병도국회예결위원장  
“전북, 예산서러움없도록 할 것”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때의 서러움을 한꺼번에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기간담회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도 2명이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는 우리 전북이 예산으로 홀대받고 서러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접수

8월 29일까지  
혁신·경제·문화·나눔 분야

전북자치도는 도청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

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도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이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그동안 17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 귀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자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된다. 과학기술,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교육, 사회봉사, 효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 위상을 높인 인물이 대상이다.

추천은 도내 기관·단체·기업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전북도민이 연서한 경우 가능하며, 본인의 자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전북으로 돼 있고, 해당 분야 공적이 있는 인물이다.

단, 기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월 29일까지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또는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추천에 의한 동의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전북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0월 24일 예정된 '제45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이며, 전북을 빛내는 분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보내는 상"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주민주도 '전북형 관광두레데이' 성료

주민 기획·운영자로 자리매김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과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일 오후, 전주 유니크베뉴 올드브릭 3층에서 '2025 전북 관광두레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모델이 실제 지역 관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민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전북의 지역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 관광두레의 최초 본사업이며, 특히 주민사업체와 PD,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한 통합 행사라는 데에 의미를 둔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신규 주민사업체 협약식, 재단-도청-공사-주민사업체 간 네트워킹, 실무 중심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회계 실무 교육과 브랜딩, 마케팅,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주민사업체의 자립 기반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했으며, 총 54건의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신규 협약을 체결한 주민사업체는 향후 현장에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체험·상품 개발, 마을 브랜딩, 관광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는 "이번 관광두레데이는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운영자'로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었다"며, "주민의 역량과 자원에 기반한 전북형 관광두레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 1.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2.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 3.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럼증, 의식 혼란 등

### 4.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 전주상의 “완주·전주 통합, 기업 10곳 중 8곳 찬성”

관내 1404개 회원기업 설문조사  
상공업계 “거점 광역도시 시급  
나후 극복·예산 확대 효과도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북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상공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 최대 현안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김정태 회장(전주상공회의소)은 관내 1404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4.10.07.~2025.07.07.일까지 1차~2차에 거쳐 두 차례 상공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기업들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 통합 추진 시 우선 해결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404 회원기업 대상에서 지난해 1차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답변에 참여한 271개 업체 조사에 따른 것이며,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 조사에 응답한 433개 업체 의견에 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완주 기업은 통합 찬성에 1차 51개 기업 87.7%, 2차 84개 기업 76.4%, 기타 5개 기업 71.4%로 나타났다.

전주지역 찬성에서는 1차 185개 기업 89.8%, 2차 233개 기업 84.1%, 기타 35개 기업 76.1%으로 확인됐다.

완주·전주 통합 1차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이유로 완주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18.8%), ‘전북의 나후와 소멸위기 극복’(17.7%), ‘행정조직 통합으로 운용비용 절감’(각

17.7%) 등을 꼽았다.

전주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25.2%), ‘통합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복지서비스 증대’(16.9%)를 찬성 이유를 들었다.

2차 통합 찬성이유로 완주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34.1%), ‘전북의 나후와 소멸위기 극복’(18.9%), ‘통합에 따른 나후 전북의 위상제고’(15.2%)을 밝혔고 전주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25.2%), ‘통합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복지서비스 증대’(16.9%)을 꺼냈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의 주요 이유로 두 차례 조사 결과 모두 거점 광역도시 구축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 나후와 소멸위기 극복과 전

북의 위상제고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전주 통합 우선 과제로는 상생 발전 위한 ‘실질적인 약속 이행의 구체화 41.5%’ 요구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따라 ‘자치단체 간 신뢰 구축 34.6%’, ‘주민 통합 우려 해소 33.3%’ 등이 제시됐다.

전주상공회의소 완주·전주 통합 찬·반 설문조사에는 ▷기업 소재지 ▷완주·전주 통합 견해 ▷통합 찬성 이유 ▷통합 반대 이유 ▷완주·전주 통합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 등등이 담겨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두의 공유와, 정보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전북의 확실성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정원호 위원장 “지역은행 없인 균형발전 없다”

전북은행 정원호 노조위원장  
“지역은행 발전” 토론회 참여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및 핀테크 기업 등과의 치열한 경쟁과 지역 소멸 위기까지 마주한 지역은행의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일보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사단법인 분권균형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 부산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은행의 공공적 역할과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은행 정원호 노조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행노조협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관 이전 후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은행

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 순환 구조가 병행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특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들과 규모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북은행은 서민 금융 지원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점포를 적자 운영 중”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생각하면 지역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역은행 우대 기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의무화 ▲비금융 부문 수익 모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역은행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과제로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자금 예치 일정 비율 의무화와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역은행 우대를 꼽았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지원체계 본격 가동

청년몰 현장 목소리 반영 구성  
청년 상인 교류 활성화 기대

전북자치도는 도내 청년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상인과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완주 삼례시장에서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개별 청년몰이나 시군 단위의 자율적 운영에 의존해 왔던 청년 창업점포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 첫 사례로, 청년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간담회에는 전북도의회 서난이·윤수봉 의원과, 전북상인연합회장, 도내 청년몰 대표, 기성 상인회장,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점포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7개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상권 재생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상권의 한계, 청년상인들의 경험 부족, 주변의 무관심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발족 선언, ▲청년몰 공모사업 안내, ▲청년상인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자체 커뮤니티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특히 전문가와 청년상인 간 지속적인 소통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박세용 김제 전통시장 청년몰 대표는 “그동안 각자 매장 운영에만 몰두해 소통이 부족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청년상인 간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어 의미 있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청년몰은 단순한 창업 공간이 아니라 지



전북자치도는 14일 완주 삼례시장에서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역경제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협업과 성장의 장”이라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청년몰이 다시 뛰고, 청년 상인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소통협의체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청년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왕우렁이 농경지 외부 유출 차단 관리 당부

“월별 점검표대로 관리  
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별 점검표를 숙지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지만, 왕우렁이 사용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월별 점검표에 따라 왕우렁이를 철저히 관리해 농경지 유출을 최대한 막고, 중간물떼기 이후 왕우렁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용·배수로에 차단망 등을 설치 집중호우나 장마에 논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정 수위 유지 논둑을 높이거나 누수를 점검하는 논둑 정비 등을 해야 한다.

또 중간물떼기(7월 중하순) 이후 승용물길 조성기 등으로 논 가장자리에 물길을 조성하고 이틀에 걸쳐 천천히 물을 빼면서 논 가장자리 물길이나 배수로로 왕우렁이를 유도한 다음 뜰채 등으로 건져낸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에 집중적으로



왕우렁이 배수로 차단망 설치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 이후 벼 생육 후 물떼기(9~10월) 전 예방 자재를 뿌려 밀도를 낮춘다.

/김은지 기자



## 농협전주시지부, 동신초 식습관 교육·스쿨팜 진행

직접 기른 상추로 버거 만들기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지난 11일 건강한 몸, 밝은 마음, 넓은 생각으로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전주동신초등학교(교장 강지영)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침밥 먹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밥과 삶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이어, 하양진 지부장, 강지영 교장과 학생들은 함께 지난 4월 텃밭 상자에 아이들이 손수 심고 길러온 상추를 이용한 건강한 로컬버거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하양진 지부장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농협, ‘누구나 이용 가능’ 무더위 쉼터 제공

은행·농축협 영업점 252곳 개방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전북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 52개소와 지역농·축협 본지점 200개소를 개방해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 더위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무더위 쉼터’를 알리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영업점 내 대기공간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 방문 시 시원한 음료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도내 농촌 지역에서 농협의 무더위 쉼터는 열사병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 모두가 전북농협의 무더위 쉼터에서 활력을 되찾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전북농협은 항상 도민과 도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농협은 쿨스카프 및 쿨타월 등 안전물품을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농촌진흥청, 가루쌀 수발아 억제 물리브덴 비료 개발

처리 시 발생을 최대 24% 낮춰  
내년 전국 생산단지 보급 계획

최근 기후변화로 수발아 발생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 벼 등숙 기인 9월 평균기온이 24.7도(℃)로 평년보다 4.2도 높았고, 강수량도 39mm 더 많아 수발아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조성돼 일부 지역에서 수발아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수발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물리브덴(Mo) 함유 비료’를 개발했

다고 밝혔다.

물리브덴은 식물에 꼭 필요한 미량원소이다. 종자가 일정 기간 발아하지 않고 휴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물질인 ABA(앱시식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 재배생리과 연구진은 물리브덴산염이 0.1~0.2% 함유된 비료를 10아르(㉓)당 11kg씩 벼 이삭이 패기 25~30일 전 가루쌀(바로미2)에 처리했다.

그 결과, 무처리보다 수발아율이 20~24%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물리브덴이 수발아 억제 관련 유

전자 OsA03 발현을 촉진해 발아를 억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남해화학(주)과 공동 연구로 물리브덴비료 처리 시기와 처리량에 따른 수발아 저감 효과를 입증했으며,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현재 물리브덴비료 시제품은 이삭거름에 물리브덴산염을 첨가한 입상(알갱이) 형태로 개발돼 영농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가루쌀(바로미2) 생산단지 151곳 중 지역별로 10단지를 선정해 ‘가루쌀 물리브덴비료 수발아 경감효과’ 현장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물리브덴비료의 수발아 저감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2026년부터 전국 가루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물리브덴비료 처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수발아가 발생하면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식미와 완전미 비율 감소로 품질이 떨어지고 종자 활용 가치도 낮아진다.”라며, “물리브덴비료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보급 확대에 힘써 수발아로 인한 가루쌀 수량 및 품질 감소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도교육청, 도의원과 갈등 빚던 시설 보복 감사·징계 의혹

청소년 자치 배움터 ‘자몽’  
교사·학부모·단체 철회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청소년 자치 시설을 상대로 유례없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앞서 지난해 2월 자몽의 활동공간인 옛 월명초등학교 운동장을 학생용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던 전북교육청이 A 도의원이 민원 제기 직후 테니스장으로 바꾸기로 해 갈등이 있었다.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학부모·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군산의 청소년 자치 배움터 ‘자몽’에서 근무하는 파견 교사 등 관계자 10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감사는 A 전북도의회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한 직후 시작됐고,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학부모·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개월간 이어졌다”며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자치공간에 대한 특정감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며, 자몽만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행정 점검을 가장한 표적 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사태는 의도적

도 ‘용도 외’라는 이유로 징계하려 한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군산에 청소년 전용 테니스 코트가 없어 자몽이란 공간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보복으로 행정 감사를 진행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 도의원은 “자몽은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며 “예산 집행 영수증은 물론 집행결의서도 없이 시설이 운영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돼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 기간이며,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여름방학 학습공백 막는다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보충하고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습도약 계절학기’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 교사 등이 방학 중 소규모 학습을 편성해 맞춤형 교과(국어·수학·영어) 보충 지도와 자기주도 학습 태도 함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게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찾고, 교사는 개별 학습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

는 도내 203개 초등학교에서 책임교육학년인 3학년을 대상으로는 176개 프로그램이, 2·4·5·6학년 대상으로는 483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참여학생 수는 1,845명에 이른다.

특히 학기 전환기인 방학은 학습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학습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배움에 대한 동기 및 흥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하계방학 중 학습공백으로 인한 기초기본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몽골서 ‘유학생 1천 명’ 유치 ... 협약 체결

바양주르흐구와 MOA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최대 자치구인 바양주르흐구와 최대 1천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형 MOA를 체결하며, 아시아 고등교육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전략인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 계획의 본격적 실행으로,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지난 6월 17일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양오봉 총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직접 몽골 현지를 방문해 협약 체결에 나섰다.

특히 양 총장은 몽골 교육부 청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공식 접견하고,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최첨단 융



합기술 분야에서 전북대의 교육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상호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확장을 강조했다.

협약 서명식은 바양주르흐구 구의회에서 진행됐다. 의장을 포함한 50여 명의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바양주르흐구는 울란바토르 내 가장 큰 구로, 올해에만 4,071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학위과정, 교환학생, 한국어연수 등을 포괄하는 ‘우리미래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출범시켜 유학생 1천 명을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교육 협력 분야는 몽골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이자 전북대가 강점을 가진 △AI △자원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토목공학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경영학 △무역학 등 실무전공까지 포함된다. 전북대는 우수 몽골 학생을 선발해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이 AI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우석대학교>

### 우석대-전북교육청, AI 교육협력 나서

AI 교육과정 실무 교류 등  
“지역 AI 인재 양성 적극 기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이 AI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임정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나희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인 물

적 자원의 상호 교류 △AI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 및 실무 교류 △AI 교육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 실현 △AI 관련 기획 및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 중 하나인 AI 교육을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석대학교의 교육 지원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AI 인재 양성과 창의적 교육 생태계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완주 창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 모집

완주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완주교육지원청 창의예술미래공간(이하 꿈이공)은 2025 꿈이공 여름방학 캠프 ‘여름! 나를 찾아가는 여행, Summer Dream Art Lab’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이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캠프에는 완주 관내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과 체

협, 진로 탐색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돌봄(명상 및 움직임) △생각을 그리는 작가교실(초등 인문학) △스토리 크리에이터(중등 인문학) △메타버스를 이용한 탄소저감기술 제작 △푸드 테라피 △케이팝 댄스 아카데미 △뷰티 클래스(네일

아트) △에너지 UP! 같이 뛰어놀자(뉴스포츠) △캘리그래피와 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쇼츠제작(웹툰) △꿈을 부르임하다(바리스타 체험) △나무에 담은 나의 이야기(목공·공예) △합주능력 완성 프로젝트(밴드) △나의 첫 무대, 나의 이야기(연극) 등 14개 과정이 운영된다.

/최성민 기자

## 계곡/강에서 물놀이 안전수칙



1. 물놀이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기



2. 다이빙 금지 등  
주의사항 표지판  
확인하고, 실천하기



3. 일기예보  
확인하기



4. 신발과 구명조끼  
착용하기

##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인재장학금 190명 선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기별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민선 8기 이학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장학 인원 확대 계획은 2026년까지 총 200명 선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전년보다 20명을 더 늘려 1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제 대학생 156명, 전문대생 34명이다.

장학생에게는 4년제 대학생 220만원, 전문대학생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총 지원 금액은 4억 4040만원 규모로, 재단은 성적과 생활 형편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14일부터 28일까지 장학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20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jcsf.or.kr)를 통해 발표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경로당 384곳

### 개보수기능보강…19억원 투입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경로당 384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기능보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추경을 통해 4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기능보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폭염 등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 대상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 2곳에 새로 신축하는 사례를 포함해 총 384개소다. 시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 인원, 건축 연도, 노후화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개보수가 시급한 203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179개소에는 기능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성황리에 종료

군산시가 주최·주관한 '2025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지난 12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1천만 원의 상금을 건 이번 대회는 지역 내 e스포츠 수요 충족 및 e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월례체육관에서 개최됐던 개회식은 호원대학교 댄스팀 'BLUE'의 식전 공연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 도의원, 송미숙 군산시의원, 김영자 군산시의원, 윤신애 군산시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5인 팀전) △발로란트(5인 팀전) △브롤스타즈(개인전) △롤토크스(팀파이트 텍틱스, 개인전) 총 4종목으로 대결을 펼쳤다.

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듯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온라인 예선에는 166개 팀 총 830명이 접수했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퓨리(FURY) 팀이, 발로란트는 런앤건(RNG)팀이 우승했다. 또한 브롤스타즈 1위는 박시후 선수가, 롤토크스 1위는 정성현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야구 중심 도시 향해 ‘폴스윙’

### 부송매립장 부지에

### 일반·리틀야구장각 1면 조성

익산시가 야구장 기반을 확충하며 '전국구 야구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부송매립장 부지 약 3만 2,000㎡에 일반야구장 1면과 리틀야구장 1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51억 원(도비 25.5억원, 시비 25.5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앞서 설계용역과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익산시는 종합운동장에 일반야구장 2면과 리틀야구장 1면을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총 5면 규모의 야구장 집적지를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집적화는 일반·리틀·엘리트 야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위한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전망이다. 특히



야구장 조감도

<사진=익산시>

초·중·고 유망주 중심의 엘리트 야구 육성 체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돼, 익산이 명실상부한 야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야구장 확충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선수단·관광객 유입을 통해 숙박·식음료·관광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야구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스포츠 자산”이라며 “이번 야구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익산이 전국 단위 야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폭염 대책, 현장에서 시민 체감도 ‘UP’

### 얼음생수스마트 그늘막 등

‘얼음생수’,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쉼터’…정읍시가 마련한 폭염 대책이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실효를 거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시민들은 “좌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정읍시의 세심한 행정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여름 74일간 이어진 폭염 특보의 경警을 바탕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올해는 시 전역 9곳에 얼음생수 3만

병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시민들은 “무더위에 지칠 때 길가에 비치된 생수 하나가 큰 위로가 된다”,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심 내에는 스마트 그늘막 10개소를 설치해 폭염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정류장, 공원, 교통심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정읍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온열질환

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4000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통해 안부 확인과 현장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410곳의 무더위쉼터 운영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쉼터마다 생수, 수박, 아이스크림 등을 비치해 무더위 속 휴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기획재정부 단계 ‘국가예산 확보’ 나서

### 최부시장 기획재정부 방문 정부예산안 심의 선제 대응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 활동에 나섰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사업 예산과정을 만나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 2회 추가경정예산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 부시장은 임대한 안전예산과정을 만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평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와리 2지구 금강사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경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에게는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

했다.

박환조 기후환경예산과장과 면담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왕궁 자연환경보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 △산업단지 완충지류시설 설치사업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위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완수 타당성심사과장에게는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왕궁 자연환경보원사업'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철도 이용객 편의 증대와 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익산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정치권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흐름에 맞춰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긴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은 우리 시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8월 말까지 이어질 기재부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공직문화 혁신 선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및 과장 등 고위 공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급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공직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소속 강영미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영미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과 대응 전략을 설명해 공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이해충돌 방지 및 청탁금지법 실무 적용 △청렴 리더십의 실제 사례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

한 리더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피하는 것을 넘어, 신뢰받는 행정의 근간'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티투어 전면 개편…관광도시 도약

### 시군 통합 30주년 여행상품

익산시가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하고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는 관광 콘텐츠 재구성, 예약시스템 개선, 지역 상생모델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편을 통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시티투어의 명칭은 '리얼(Real) 익산'이다. 진짜 익산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백제 역사 유산부터 근현대 도시의 흔적, 지역 상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여행 코스로 구성된다.

기존 '9경3악 익산여행(1박 2일)' 코스는 백제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해 흥미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 요소를 강화했다.

1일차는 보석박물관·왕궁리유적·미륵사지 등 백제 유적지를 중심으로, 2일차는 고스라·금강유람선·이상한교도소·아가페정원·전통시장 등을 연계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간 프로그램인 '익산별밤시티

투어'는 '노을 따라, 별빛 속으로!'를 주제로, 계절별 야경 명소와 금강유람선을 연계한 코스로 탈바꿈했다.

신규 테마형 투어 '리얼 익산, 기억을 걷는 시간'은 익산의 근현대사를 조망한다. 이리역 폭발사고 현장을 시작으로 철도관사, 근대역사관, 춘포역 등 도시의 아픈 역사를 따라 걷는 의미 있는 코스다. 전북대 캠퍼스 내 정원과 근대문화유산도 포함해 자연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여행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이리·익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하나된 익산, 30년의 이야기' 특별투어도 선보인다. 과거 두 도시의 역사적 장소를 배경으로 익산 출신 시민과 현 거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오는 9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눈에 띈다. 이달 말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시티투어 예약이 가능해지며, 오는 8월에는 문화관광 누리집(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해 이용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노인일자리 폭염 대응 총력

### 활동 시간 단축·실내 활동 전환

정읍시가 폭염에 취약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맞춤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오는 9월까지 혹서기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6837명이 속한 82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혹서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단 특성에 맞춰 단계별로 시행된다.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모든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대면 활동 대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며, 폭염 관심 단계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물품 제공, 활동 시간 조정 등이 병행된다.

특히 복지서비스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중단이 어려운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상처입은 아이들에게 ‘마을 품’ 내어준다

익산시가 정서적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학교폭력과 정서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아이(0)-보듬공동체 마을 품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치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가해자·방관자 모두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회복 중심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의 핵심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고 지역 내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익산형 마을 품 만들기는 단순한 학교폭력 대응을 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마을 품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을 정착시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5년 7월 정기본 재산세·전년 比 4.8% 증가

군산시가 2025년 7월 관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본 재산세 14만 1천 건, 총 3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7월에 부과하며, 주택 나머지 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 원)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강천산군립공원, 완벽한 피서지 ‘대변신’

### 여름 성수기 야간개장 확대 계곡 물놀이 구간 대폭 확장 캠핑객 편의랜드마크 조성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군립공원이 여름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천산군립공원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맑은 계곡 물과 시원한 폭포, 울창한 숲과 정비된 산책로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성수기를 앞두고 맨발 산책로, 화장실 등 공원 내 시설물들을 수시로 정비했으며, 25km에 이르는 등산로 전 구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돈했다.

이와 함께 계곡 물놀이 공간도 대폭 확장했다. 군은 산호가든에서 금강계곡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풀베기 및 하상 정비를 실시해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군립공원이 여름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사진=순창군>

또한 강천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동, 개수대, 데크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정비 중이며, 캠핑장 이용객에게는 강천산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여름철 야간 관광 수요에 맞춰 강천산 야간개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오늘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는 매일 오후 8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더 많은 방문객이 시원한 밤 산책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탐방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도 마련

됐다. 군은 강천산 공원 입구에 장류 캐릭터 조형물로 구성된 ‘강천산 캐릭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입구 삼거리에 단풍나무를 식재해 쉼터 기능을 겸한 조경 공간을 조성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군립공원은 순창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관광 자산으로, 이번 여름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 속에서 휴식과 감동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맞춤돌봄서비스’가 위기 막았다

생활지원사 신속 대응 빛나  
어르신 안전 확인 체계 작동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최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중 위급 상황의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히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모두 타지에 거주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댁에 생활지원사가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생활지원사는 곧바로 관리사무소, 마을 통장,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등에 연락했고 직접 뛰며 어르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보호자와 통화

연결되자 상황 설명 후 자택 내부로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즉시 119에 연락한 후 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김00 담당 생활지원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소통하고 살펴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그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 노인의 안부와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폭염 대응 안전 확인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은 14일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 지역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관내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사진=순창군>

### 순창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지역 문화 탐방

발효음식 만들기·강천산 체험  
지역 문화·정서 이해 도와

순창군이 14일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관내 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 정서적 안정 및 지역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들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고추장과 인절미, 전통 발효음식 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우리 전통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방문한 발효테마파크와 발효소스토굴에서는 ‘발효의 고장’ 순창의 특징과 발효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일정은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진행됐다. 근로자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류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지역공동체 공론장 ‘원포럼’ 성료

공동체 활동 주민 60여명 참여  
경제·문화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2일 지역공동체 공론장 ‘원(ONE)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 중인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토론에 앞서 지역공동체 분야 전문가의 기초강연이 진행돼 논의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의제는 시민공동체·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화형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정됐으며, 참석자들은 테이블별로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가며 의제별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일방적인 발표 중심이 아닌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속의형 구조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는 향후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다채로운 여름방학 독서·문화체험 운영

완주중앙도서관, 8월까지  
어린이와 가족 체험·인형극 등

완주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와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 독서 활동, 창의적인 체험활동, 교육 인형극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25일, 8월 12일은 초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풀잎국수〉, 〈큰 토끼 작은 토끼〉도

서를 활용한 동화 구연과 힐링 독서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체험활동에서는 토끼어린 재료를 활용한 ‘나만의 식물 친구 만들기’와 냅킨아트를 활용한 ‘토끼 거치대 및 메모판 만들기’가 마련됐다.

8월 23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교육 인형극 〈토도는 용기쟁이〉 공연이 이어진다.

참여 신청은 완주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문화행사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칠랜드에서 임원 및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회원 상호간 친밀한 소통을 통해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도모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교육에서는 ‘성리더십 향상·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순창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명자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따뜻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봉사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들의 양성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양성활동주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식재료 탐험대’로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만든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에서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7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에 관내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의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내 교육실에서 ‘식재료 탐험대’ 특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특화사업은 ‘당근’을 주제로 한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1주 차에는 당근에 대한 이론교육 및 놀이 활동을, 2·3주 차에는 당근을 활용한 요리 활동을 통해 당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하게 인식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당근에 대한 이론교육 △당근 뽑기 게임 △클레이로 나뉜 당근 만들기 등의 놀이 활동과 △모닝 당근 피자빵 △꼬마 당근 김밥을 만들어보는 요리 활동으로 구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식재료를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및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산림조합, 로컬 임산물 활용 저탄소 식문화 쿠킹클래스 진행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최근 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로컬 임산물을 활용한 ‘산(山)요리, 들(野)요리’ 쿠킹클래스를 실시했다.

행사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캠페인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요리 체험자를 모집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산(山)에서 수확하는 임산물인 취나물과 표고버섯, 들(野)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인 콩 등을 원료로 요리, 저탄소 식생활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산림조합 임필환조합장은 “우리 가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로컬재료를 활용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을 사용,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민과 임업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산림조합은 산림문화복합센터를 개소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경영지도사업, 산림사업지원, 상호금융·산림사업융합자금 등이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월락정수장 ‘안전한 수돗물 인증’ 추진

### 정수장 정밀여과 설치 56억 투입, 10월까지 준공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안전한 수돗물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유충 유입 방지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조치를 다 한 정수

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남원시에서는 정수지 유입·유출 관로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해 소형생물을 제거하는 월락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566백만원을 투입해 올해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정수장에 대한 위생 및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 위생안전 인

증 획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김재천 완주군 부의장, 돌봄통합법 실질 지원 촉구

### 294회 임시회서 건의안 발의 “구체적 지원 없인 시행 어려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매우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법을 주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의회, 주차장 설립·정원도시 조성 비전 제시

### 성중기·유이수·이경애 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5분 발언

14일 열린 완주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성중기 의원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실태 개선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행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주차장은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봉동 구도심과 둔산공원 일원 등 완주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

차와 관리 부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상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에 임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초기 재정 부담 완화에 유리하지만, 소유권이 없어 언제든 주차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다음 세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이수 의원은 소양면 조정수를 활용한 정원도시 완주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며 완주 관광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 자원인 소양 절경을 정원도시 조성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번호사 제도가 있으나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쳐 실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진안을 주민 백덕자 씨, 지역 학생들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지난 11일 진안을 주민인 백덕자 씨가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덕자 씨는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직접 만든 친환경 세제 나눔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여선희)가 2025년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최근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 맑은 청 친환경세제 나눔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 실천 교육으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친환경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친환경 제품 사용 필요성을 배우고 직접 만든 친환경 세제를 완주군 관내 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나누며, 환경 보호와 이웃 나눔을 동시에 실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김제시자원봉사센터, 20 가구에 직접 만든 밀반찬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한마음가족봉사단이 지난 12일 밀반찬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마음가족봉사단 20여명의 회원들이 장조림, 동그랑땡 등을 정성껏 만들고 김제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센터 대상 아동이 사는 20가정에 전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염영선 도의원, 취약계층 1천 가구에 생필품 전달

### 희망풍차 결연세대 대상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1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 봉사원들의 인도주의 활동을 격려하고 도내 1천여 가구의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은 적십자와 결연을 맺고있는 취약계층 1천 가구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복자치도 보조금 1억으로 마련된 백미 10kg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염영선 도의원은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결연세대를 찾아가 준비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보니 더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체감할 만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 장학금 450만 원 기탁

### 모교 적상중 방문 후배 응원

무주 적상중학교 1회 졸업생인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이 14일 적상중학교(교장 정순도)에 장학금 450만 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재학생 1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전달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호 회장은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장학금에는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심정, 모교가 학생들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장학금 기탁 후에는 적상면 이장단을 찾아 고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회원들 25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눴다.

/무주=최희호 기자



### 정읍 내장산콜운영위,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 단체가 시민의 발을 넘어 지역 인재를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거듭나고 있다.

내장산콜운영위원회(위원장 문석준)는 14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394명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꾸준한 선행이다. 이로써 누적 기탁금은 총 1000만원에 달한다.

문석준 위원장과 회원들은 “정읍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정성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재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발이 돼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버팀목이 돼주셨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전주서신초 학생들, '서신당근마켓' 수익금 기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나눔 행사를 열고 행사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전주서신초등학교(교장 이난경) 학생들은 14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학생들이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 84만4020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앞서 전주서신초 학생회가 주최한 교내 행사인 ‘서신당근마켓(벼룩시장)’에서 이 학교 1~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과 기부금이다.

‘서신당근마켓’에는 23개 팀(학생 45명)이 직접 상점을 구성해 중고품과 손수 제작한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모여 이번 성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주서신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졌다”면서 “어린 손길이 모아 만든 정성이 앞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태 기자



### 남원 금동 발전협의회, 지역 어르신에 콩국수 나눔행사

남원시 금동 발전협의회(회장 최재우)가 지난 14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콩국수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준비한 면과 지역업체(노고단 식품, 대포 강상길)에서 기부한 콩물을 활용하여 각 직능단체와 행정복지센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콩국수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웠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를 나누며 정이 가득한 식사 자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정읍시 농소동, 독거노인 폭염 보호 '안부 살피미' 추진

정읍시 농소동은 폭서기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간 ‘안부 살피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농소동 거주 70세 이상 독거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완주군지사협 어르신행복분과, 어르신 200명에 물김치 나눔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행복분과(분과장 정태원)가 완주군 지역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할 여름나기 물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물김치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무더운 날씨에 물김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전달해달라”며 “올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 음식은 꼭 익히주세요                            | 물도 급격적이면 끓여먹어요             | 세척 및 소독하기                           | 구분해서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
|----------------------------|----------------------------------------|----------------------------|-------------------------------------|----------------------------------------|---------------------------------------|
|                            |                                        |                            |                                     |                                        |                                       |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히 드세요. |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

〈一事一言〉



조은석 특검팀의 맹활약, 국민 율화증 날린다

김관춘  
논설위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10일 전격 발부됐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지쿠엔 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이며, 그 사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정밀하게 구성해 왔다. 이번 재구속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신병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이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혐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반민주적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 그 죄목만 해도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지경이다. 이것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넘어선다. 이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자가 국가 체제를 무너뜨려 영구집권을 노리는 시도, 즉 내란죄의 본질에 다름 아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178쪽 분량의 발표자료, 수십 명의 검사 투입, 관련자 수백 명의 진술, 수많은 물증들. 그 어떤 변명과 거짓말과 꾀변도, 그 무엇보다 ‘법꾸라지’로

불러며 회피에 능했던 윤석열의 언행도 이번에는 특검이 내민 법 앞에서 무력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의 논리에 설득당했고, 마침내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수괴 구속이라는 역사적 심판으로 이어졌다.

이 구속의 본질은 단 하나다. 민주주의는 잠시 흔들리고 위태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권력자의 일탈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수백만명의 응원봉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는 잠시 흔들렸지만,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고 사법 정의는 끝내 작동했다. 정의의 칼날은 마침내 칼자루를 쥔 자의 손으로 향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더 깊고 넓은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감행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된 공범과 부역자, 동조 세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단 한 줄의 진실 은폐도 있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내란 모의와 실행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했던 시도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 횡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임기를 마친 DJ는 전두환 군부 세력에 의해 ‘내란 음모’라는 혐의만으로도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국민 다수는 지금 이 사건을 내란 세력 청산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구속은 출발점일 뿐이며,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권력 무책임’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범 세력은 물론, 내란 행위에 눈감거나 동조했던 정치인, 군·경 고위직, 언론인, 법조계 인사 등도 의혹을 밝혀내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분명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힘 일부와 극우 보수세력은 윤석열의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치보복은 곧 정의가 작동한데 대한 저항이다. 법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따라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과정을 두고 정치적 편가르기 통치려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 공범 세력들의 지은 죄를 밝혀내 응징하는 과정이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관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윤석열 구속은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학살 등 권력자들이 무력으로 헌정을 짓밟아온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전환점이다. 1987년 이후 30여 년 만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특검이 있으며, 끝내 살아 있는 법이 있다.

조은석 특검에게 국민은 지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 동기와 목적, 외환유치죄 의혹, 유건희 부부의 비자금 조성, 국방 라인 사유화, 계엄령 실행계획 공유 및 실행 의혹, 언론 통제 계획 등 윤석열을 둘러싼 국정문란의 중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모두 밝혀지고, 이 음모에 가담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온전한 민주국가로 서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헌정을 농락하려 했던 그 죄는, 오늘날의 법의 심판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단죄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이 명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설

전주가정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가 공동선을 추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지를 규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법서비스 접근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시절, 고등법원이라는 2심 재판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5개소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들은 광주까지 가서 2심 재판을 받느라 적지 않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이러한 불편은 1990년대 초반, 지역 법조계와 언론 및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광주지법 전주지부가 설치됨으로써 일부 해소됐다. 이로 인해 2심 재판의 접근권과 심리의 균일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도민들은 또 다른 사법 서비스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에서 소년, 이혼, 상속 사건 등을 한데 모아 처리하면서 심리의 심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도민들의 권리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권역별 대도시든 물론 수원이나 창원에도 별도의 가정법원이 존재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심층적으로, 또 세심하게 소송

을 심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전북, 충북, 강원, 제주에는 아직 별도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소송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데도 전주지법 민사부에서만 이들 사건을 일괄 심리해야 하는 현실은 심리의 지연, 심리의 심층성 약화에 따른 당사자의 불편과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1천5백여건이라는 사건 수치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 그동안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수차례 입법안이 제출됐으나 매년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면서 끝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사법서비스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이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기관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아니거나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바로 전북도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국가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국회, 그리고 지역 공동의 협력과 결단이라는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해온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강조된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이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문화재 열전



수만리 마애석불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석조, 불상  
-지정일- 1979년 12월 27일  
-시대- 미상  
-소재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4-3번지

▲오늘의시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

사는 일은  
법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서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시인 약력 : 1946년 강원도 양양 출생. 1976년 잡지 심상에 시 '겨울추상화'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유심지 주간, 백담사만해마을 운영위원장,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장, 설악신문 대표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장,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

다.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 제24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뽕을 적시며' 등의 작품을 남겼다.

|                                                          |                    |                                                                               |
|----------------------------------------------------------|--------------------|-------------------------------------------------------------------------------|
| <b>JBT 전북타임즈</b> Jeonbuk Times<br>www.jeonbuktimes.co.kr |                    |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간우) 54990<br>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 편집국장 김관춘                                                                      |
| 대표전화 282-9601                                            |                    | 인쇄인 김은주                                                                       |
| 업무국 팩스 282-9604                                          |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임실지국 010-8642-6502                                                            |
| 팔백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진안지국 010-2438-1721                                                            |
|                                                          | 순창지국 010-5312-7293 | 완주지국 010-3672-0308                                                            |
|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여름 실내적정온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에어컨 작동중 일때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풍력과 수소, 농생명과 치유 어울린 세계적 RE100 도시 부안시대 기틀 다져!

## 2년 연속 예산 8000억 시대 개막 해뜰웰니스타운 등 지역발전 공모 다수 선정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건설 등

민선 8기 부안군이 어느덧 3주년을 맞으면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3년 동안 적극행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사상 첫 예산 8000억원 시대 개막 및 6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 달성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공모 선정,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건설, 국내 유일 지방정원 2개소 보유,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등 부안 대도약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왔다.

특히 수소산업 퍼스트버버와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등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재편 등 지역의 튼튼한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했다.

또 전국 최초 RE100 산단 조성과 심자형 철도망 구축,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을 추진해 미래 100년 부안의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분매장 신규 오픈과 함께 누적매출액 222억원 달성과 농산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률 제로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섰다.

### ■ 역대 최고 재원 확보...지속 가능 부안 기반 마련

민선 8기 부안군은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5600억원 규모의 부안군 예산은 올해 8091억원까지 늘어나 2년 연속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부안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재원인 공모사업 역시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356억원)과 격포항-공항 연안정비사업(106억원), 위도 진리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59억원),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30억원), 부안 뉴비리지 사업(177억원), 격포~공항마리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억원)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했다.

특히 부안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으로 4년 연속 적극행

정 우수기관 선정과 2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상 수상, 2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우수상 수상, 전국 군단위 유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 ■ 수소경제 고도화...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 육성

민선 8기 부안군은 수소경제 고도화를 통한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건설 착공과 전국 최초 농어촌 군지역 부안형 수소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인구대비 수소차 보급률 전국 1위와 전국 최초 군단위 수소충전소 2개소 운영, 전국 최초 수소청소차 운영 등 수소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발전 기반을 다졌다.

또 2.46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풍력발전 기업 본사 부안 유치)과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확장에 집중했다.

### ■ 천혜 자연과 찬란 문화 품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틀 다져

민선 8기 부안군은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비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야간관광 진흥도시 선정과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부안 가령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국제크루즈관리국 및 동북아 크루즈 여행사 MOU 체결을 통한 크루즈 기항지 유치 박차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전국 최초 섬·산림 테마 위도자연휴양림 지정 및 위도 치유의 숲 운영과 국내 유일 지방정원 2개소 보유,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170억원), '자연·일·휴식의 완벽한 조화' 부

안위케어이전센터 2개소 운영 등 정월문화 중심 치유 힐링도시로 급부상했다.

특히 2024년 인구감소지역 생활(체류)인구 도내 1위와 세계지질공원 방문객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코레일관광개발 선정 2024년 가장 많이 간 여행지 1위, 부안 변산반도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부안마실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변산비치파라·부안붉은노을축제 대한민국 밤밤국국 100선 선정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명성을 입증했다.

### ■ 부안형 푸드플랜 안정 정착...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

민선 8기 부안군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정적 정착이다. 부안군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해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목표로 부안형 푸드플랜을 아심차게 추진했다.

그 결과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덧발할매' 누적매출액 222억원(직매장 135억원·이커머스 87억원) 달성과 생산농가 518농가·소비회원 7760명·누적방문객 8만명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부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올해 제로화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321명 도입 확대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6개소 운영 등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다.

### ■ 군민복지 중심 동행행정 추진...'민생 최우선'

민선 8기 부안군은 군민복지 중심 동행행정을 추진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맞춤형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일자리 여대급 증대(2024년 3920명→2025년 5015명)와 청년 고용률 3년 연속 도내 1위 및 역대 최고치 고용률 78.6%(전국 20위) 기록 등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혁신을 이뤄냈다.

또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시행과 격포당 음식테이블 지원, 민생경제 회복 촉진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이와 함께 1읍면 1체육센터 건립 및 백산다목적 체육센터 준공과 내려청소년수련관 건립 착공, 청우평생학습관 개관, 부안북학커뮤니티센터 개관, 부안미디어센터 개관 등 군민들의 여가생활 만

족도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대도약 시대를 개막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희망찬 각오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JBT** 변하지 않는 신념  
전북타임스신문  
바른소식을 전달 합니다.